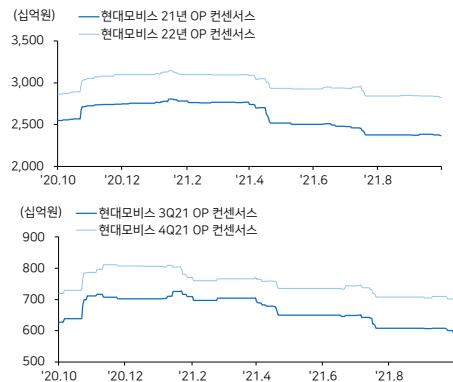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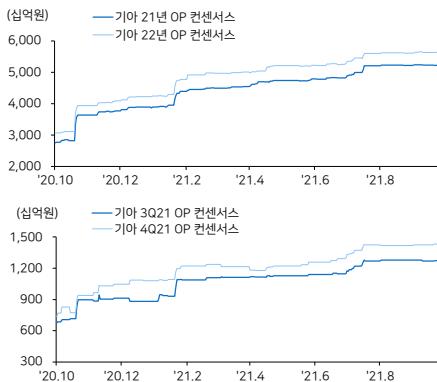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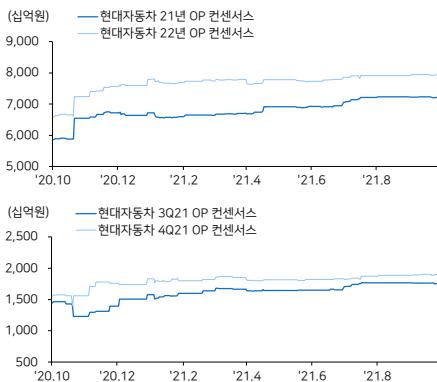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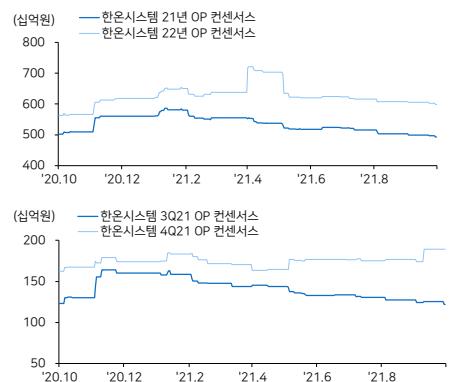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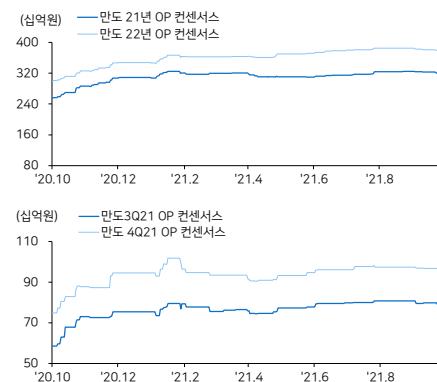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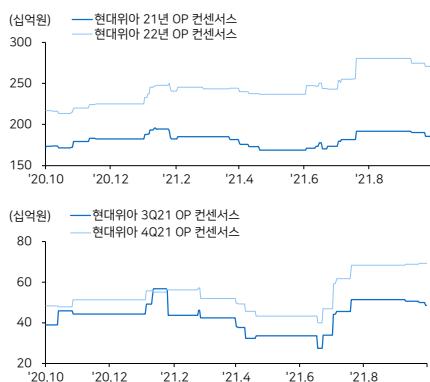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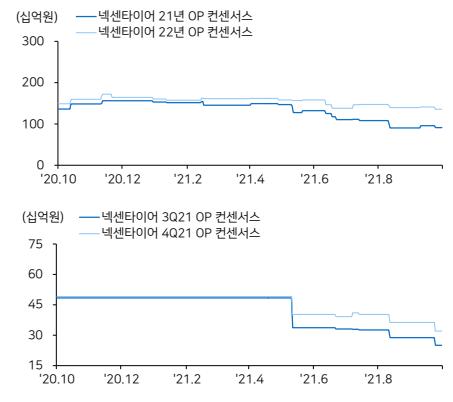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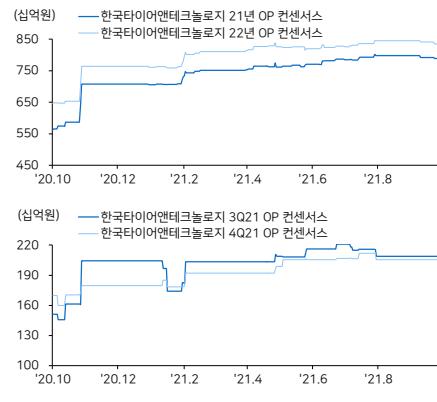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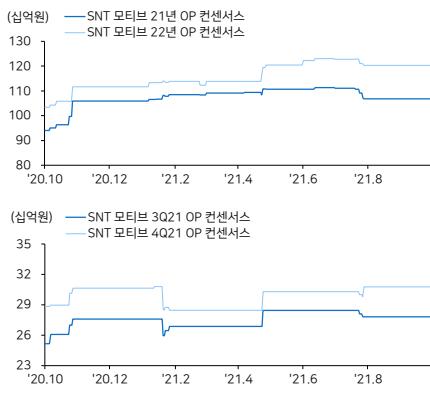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모빌리티 개발자 축제 'HMG 컨퍼런스' 개최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업계 개발자들의 축제인 'HMG 개발자 컨퍼런스'를 다음달 10~11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함. 주제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으로의 여정'으로, HMG 개발자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성장하기 위함.

<https://bit.ly/3DBYNGn>

현대차 "반도체 자체 개발 원한다" (연합뉴스)

호세 뉴스 현대차 글로벌최고운영책임자(COO)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8~9월 반도체 부족 때문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반도체 제조사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반도체 개발을 원한다고 언급함.

<https://bit.ly/2LEYgwg>

미소비자물가 yoY 5.4% ↑... '인플레 압력' 예상보다 강해 (머니투데이)

9월 미국 CPI는 yoY +5.4% 상승함. 8월 대비 0.4% 상승하며 컨센서스(+0.3%)를 상회함. 식료품, 휘발유, 난방유, 신차, 임대료, 가구 불가가 상승했고, 숭고자, 항공료, 의류는 하락함. 예상보다 인플레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

<https://bit.ly/3oYUhnC>

반도체 부족에 '세계의 승용차 시장' 중국도 휘청댄다 (연합뉴스)

CPCA에 따르면 9월 중국 자동차 판매 대수는 작년 동기보다 17% 줄어든 158만대를 기록함. 업체별 감소율은 도요타가 35.9%, 혼다가 28.1%, 낫산이 26.2%, 폭스바겐의 중국 내 두 합자회사가 48.6%, 23.1%로 집계됨.

<https://bit.ly/3Dylnym>

바이흐로 하이브리드 시대! 쏘렌토 · 그랜저 · 렉서스 HEV 날개달다 (지피코리아)

기아 쏘렌토는 올해 9월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한 54,107대가 판매되었지만,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은 동기간 25,004대 판매되며 yoY ~71.2% 증가함. 현대차 그랜저도 1,923대 팔리며 내연기관보다 700대 많은 판매량을 보임.

<https://bit.ly/3mUhRsU>

"자율주행 산업 키우자" ... 현대차 · 카카오 · KT 의기투합 (조선비즈)

민간 협업체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공식 출범함. 자율주행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자율주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검의, 기업 간 협업사업 발굴,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키로 함.

<https://bit.ly/3zI7Y1I>

282조원 쏟아부었지만..."2030년까지도 전기차 배터리 부족" (머니투데이)

SNE리서치는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시장에서는 '20년부터 배터리 부족이 이어져 유럽에서는 '24년까지, 미국에서는 '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는 기존의 선기자 산업 성장 전망 보다 더욱 가파른 실제 성장 속도에 기인.

<https://bit.ly/3aGz1Eh>

Europe's carmakers face raw material bottleneck for EV batteries (Reuters)

VW, 달리, 스텔란티스 등 주요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셀 수급을 위한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 셀 공장에 대한 투자는 진행되고 있으나 원자재 재고에 대한 투자는 아직 부족한 상황.

<https://reut.rs/3B12VU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